# 조직위 부문운동 강화 계획

1. 상반기 부문운동 및 부문사업 평가

1) 한국대학생 5월 축전 - 조직위, 조직강화 측면에서
① 학술제전
② 문화제전

2) 유대회 기획사업 - 조직위 부문사업 영역에서만 평가

3) 상반기 부문사업 총평

2. 하반기 부문운동 및 부문사업 계획
1) 두레 홈페이지를 주축으로
① 운영평가
- 관리 역량 부족
- 내용생산 미비 및 기획사업과 홈페이지 결합력 미온
- 홍보부족

② 대책 및 방향
- 홍보대책
- 운영대책 : 주체마련
- 기획사업과의 연계력 강화

③ 운영계획 및 사업
- 운영위 조직 및 모집
- 기획사업과의 연계력 강화
-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 주력단위- 기행, 풍물, 학술, 여성

2) 부문단위 단체 연석회의 진행
- 각종 부문단위 단체 연석회의 진행
- 상반기 계획은 있었으나, 각각 간담회 및 방문사업 정도 진행
- 하반기 1-2차례의 연석회의 진행

3) 기획사업
(1) 2회 학술제전 준비 - 2회 학술제전 준비위원회 구성
- 2회 학술제전 준비위원회 대상 : 학회·학술동아리, 각단체 학술국, 관심있는 개인

- 2회 학술제전 : 1회 학술제전은 강연제 정도로 마무리 되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배치했다는 것에는 성과가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2회 학술제전은 학회·학술동아리 강화, 학술운동 강화 등을 목표로 강연제 뿐 아니라 발표회, 토론회 등 내용의 깊이와 형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2004년 상반기까지 준비흐름을 형성하고자한다.

② 풍물 네트워크 구성 - 문화국과 연계, 풍물동아리 교육교양지 제작
-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2003인 길놀이 및 풍물한마당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풍물패가 1000여명 동아리가 5-60여개가 참가하였다. 어렵게 모여진 각 풍물패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물동아리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 그후, 문화국과 논의하여 풍물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교육교양지 등을 제작하고,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③ 여성운동 단위 연석회의 - 전여대협과 논의하여 각각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연석회의 등을 진행하고, 여성운동의 현재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모색해본다. 2회 학술제전과 연계하여, 대규모 여성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준비하자. 세미나나 토론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망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할수 있는 자리로 형성한다.

# 유니버시아드 대회 전국 대학생준비위원회 준비현황 보고

발신 : 조직위원회
수신 : 한총련 중집, 전원회의
일시 : 2003년 8월 21일 3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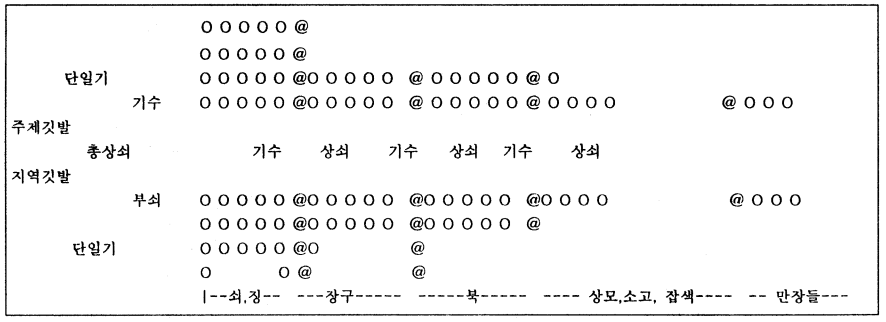
순서

1. 대학생준비위원회 사업 진행 및 준비현황 보고
2. 남북공동응원사업
3. 별첨자료
   * 전체 행사표

## 1. 대학생 준비위원회 사업 진행 및 준비현황 보고

1) 2003인 길놀이 및 풍물한마당
① 조직화 현황
- 인원 : 약 1000명, 현재 정확한 숫자는 970여명, 현재 계속 신청 중.
- 조직 동아리 : 150여개
- 만장패 : 30여명
##** 필요 만장패 : 200명 이상 ---> 대책 필요

② 길놀이 및 풍물한마당 기획
- 길놀이(3:30-5:30) : 국채보상공원-두류공원야외공연장, 퍼레이드




- 풍물한마당(7:30-9:30) : 고사, 판굿, 영산줄다리기, 난장

☢풍물한마당
전체사회: 단장
준비: 기본 조명, 음향, 무대/
음식준비: 22일 뒷풀이
23일 고사상(상, 초, 과일, 돼지머리, 북어)
막걸리(40말),바가지, 다라이, 오이, 고추, 고추장, 떡 ,접시, 종이컵, 돗자리
뒷풀이
<고사>
■소리; 인출, 성호
■제문-기훈

동천 동서남북 오방신님 수부사해 용왕지신 00산 산앙대신
이고을 선황당신 풍물패 선사님들 합의 동참하시어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학생 2003인 길놀이및 풍물한맏아 굿판을 올릴적에
이나라에 겹친 환란 우리 겨레 닥친 시련 사르고 또살라내어
거두어서는 민족 저력을 강맹케하시옵고 이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소원~)
오날 여기오신 벗님네들 액살 막힌것 다풀어내어 가정마당 화목화평 주옵시고 개개인 수복강령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조절한 굿상 정성으로 차렸으니 기꺼운 마으으로 흠향하옵소서 상향

■지역별 인사
-지역주체와 상쇠, 수장구..나와서 인사
<판굿>
6명*130줄 혹은 8명*100줄로 움직인다
판굿진-전과 같음 + 한반도 모양의 형상을 만든다.
<줄다리기>
기본은 보조회 선생님의 지도아래
진행: 성호, 인출
치배: 100명 정도, 나머지는 다 줄을 당길 수 있도록
보존회 선생님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는다.
<난장>--강강술래
소리: 성호, 인출
진행: 옥, 봉근, 지역주체들 중심

③ 대략일정
- 22일 : 4시 집결, 전체행사 의의 및 일정소개, 지역별 모임, 연습, 앞풀이
- 23일 : 연습, 길놀이 및 풍물한마당, 뒤풀이
- 24일 : 남북공동응원 참가, 귀가

④ 나서는 어려움
- 만장패 부족 : 만장 준비개수 200개. 현재 모집된 인원 2-30명.
  (대책) 대경지역 학생 및
- 운영진, 실무진 부족
  (대책) 자봉단 역량 배치

⑤ 이후, 전국 풍물카페 운영, 풍물동아리 네트워크 형성
- 평가모임, 향후 모임 지속에 대한 계획 필요

2) 문화제 및 각종 부문기획사업
- 부문사업에 관한 총화
* 청년창작가요제: 12팀, 예선없이 본선무대로. 4시간 소요, 초청무대부터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경북대 북문 주차장
* 세계민속춤전(2팀), 민족무예한마당(4개 시연), 춤한마당(1팀)은 자체 행사 진행하기 미비
---> 문화제 사전마당으로 모아서 진행.
* 열린거리전 : 모형비행기 축하쇼 진행

- 문화제(5:30-7:30, 두류공원 야외공연장) : 세계대학생한마당 "반전평화페스티발"
* 2시간 진행, 콘티별도

3) 자봉단 및 그 외 전체 현황
- 자봉단 구성 : 100여명 (?)
- 장소 문제에 난관 : 애초에 쓰기로 한 야외공연장이 갑작스럽게 북측응원단 공연장으로 바뀔수 있는 현황, 야공과 야구장중 북측공연단이 원하는대로 결정날 수 있음.
- 재정 문제 : 애초 예정대로 재정마련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

2. 남북공동응원사업
--->> 자세한 내용은 조통실에서 총화하겠지만
- 환영대회 잘 진행했음.
- 21일 (오늘)부터 첫경기 진행.
- 24일 집중 : 축구(여자) 북:프랑스
---> 1500표 확보했으나, 부족. 표를 더 확보하려고 하나, 재정부족
---> 이에 대해 한총련 등, 각계 통일운동 단체들의 준비필요.
---> 준비 지침 필요.
--->>> 조통실의 자세한 총화를 부탁합니다.
---> 홈페이지 있으나, 관리 소홀. --->조통실에서 내용 계속 업데이트 해줄 것 요청합니다.

*** 오늘 첫경기를 진행하고, 응원에 필요한 것, 응원 전반에 관한 상 등을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
*** 응원을 진행할 때, 경기장안에서만 행사가 있고, 밖에서는 별도의 행사 없음.

3. 별첨자료 - 전체행사

---
23일
* 3:30-5:30 길놀이
* 5:30-7:30 문화제
* 7:30-9:30 풍물한마당
* 4:00-9:00 청년창작가요제

24일
* 오전-6:00 자유시간
* 7시 남북공동응원전
---

##@@@ 더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
##@@@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날씨에 감기 진짜 잘걸립니다. 그럼, 수고!!!

3) 100여개 대학의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도록 합니다.
4) 주요 방송사 및 신문사, 그리고 교육부총리등 함께 할수 있는 자리로 준비한다.

**구체적 흐름>**

< 0차흐름 - 8월 말 ~ 9월초 >

■ 학내 대응 -> 예결산 분석 및 합의사항 이행 정도에 따라 등록금 투쟁 또는 사학 감사 투쟁 모색
■ 지역별 연석회의 및 부문회의 간담회 진행 -> 선언운동, 토론회 등 학자사업 제안

< 1차흐름 - 9월 >
9.7 한총련 대의원대회

■ 학내 대응 -> 하반기 투쟁을 선전 홍보 !
-> 선언운동의 의의 선전 및 조직화 진행
: 국공립대, 사립대, 교대 등 특성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식화한다.
-> 등록금 투쟁 및 사학개혁 투쟁 (투쟁단위)
■ 지역단위 연석회의 -> 지역 국회의원(교육상임위원) 면담 투쟁 ( 가능하면 9월 10일 전에 )
: 교육재정 확보와 사학개혁에 대한 요구를 진행(기타)
■ 9월 하순 100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 진행 -> 선언운동 내용 요구, 대국회투쟁 선언
-> 교육부 장관 면담 및 교육개혁 토론회제안

< 2차흐름 - 10월 >
10. 1 주미철 대학생 행동의 날

■ 학내 대응 -> 정기국회 대응 관련 선전의식화
학교차원의 학교와의 협의기구 논의 진행
■ 정기국회 대응 -> 1. 국회앞 1인 시위
2. 국회방청 및 국방부 압박투쟁
3. 교육상임위원 면담 및 항의 집회
4. 10월 중하순에 집중 대국회 투쟁 !

< 3차흐름 - 11월 >
11. 3 청년학생 인간띠잇기 행사

■ 11월 초 국회 투쟁의 정리 -> 선거 돌입 및 100개 단위 공동공약화
■ 공동 공약 제안
■ 총학생회장단 공동 기자회견 진행

< 4차흐름 - 12월 >
12. 31 남북 인간 띠잇기 행사
■ 학생회 골간단위의 투쟁 조직화

< 5차흐름 - 1월 >

■ 1월초 학자학교 진행 !
■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 시작 !
■ 사학개혁 투쟁 준비 !

▶ 교육상임위원 명단 :
교육상임위원장: 윤영탁(尹榮卓)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784-2375 (본관624호)
위원 :권철현(權哲賢) 한나라당(부산광역시, 사상구) 784-4185(회관408호)
위원 :김정숙(金貞淑) 한나라당(비례대표, 비례대표) 784-5364(회관311호)
위원 :윤경식(尹景湜) 한나라당(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784-1528(회관331호)
위원 :이규택(李揆澤) 한나라당(경기도, 여주군) 788-2952(회관412호)
위원 :이재오(李在五) 한나라당(서울특별시, 은평구을) 784-5076(회관338호)
위원 :현승일(玄勝一) 한나라당(대구광역시, 남구) 784-5072(회관531호)
위원 :황우여(黃祐呂) 한나라당(인천광역시, 연수구) 784-5365(회관623호)
위원 :김경천(金敬天) 새천년민주당(광주광역시, 동구) 784-4133(회관823호)
위원 :설훈(薛勳) 새천년민주당(서울특별시, 도봉구을) 784-4177(회관344호)
위원 :이미경(李美卿) 새천년민주당(비례대표, 비례대표) 784-1521(회관225호)
위원 :최영희(崔榮熙) 새천년민주당(비례대표, 비례대표) 784-5273(회관211호)
위원 :조부영(趙富英) 자유민주연합(비례대표, 비례대표) 784-5281(회관726호)
위원 :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21(울산광역시, 동구) 784-5961(회관720호)

간부활동 계획>
1. 간담회 일정잡기 - 국투본, 교대협 - 실장
- 전사위 간부 - 태수
- 간담회 일정 대의원대회 전에 진행한다.
2. 지역 연석회의 - 부경, 대경 - 실장
서총, 경인 - 태수
남총 - 상우
- 대의원대회 전에 진행한다.
3. 간담회 내용 -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 일정, 안건
- 하반기 학자정세 및 학자사업계획
4. 사이트 제작, 선언운동 용지 - 태수
4.5. 자료수집 - 현재 사학의 문제, 교육재정 문제 - 상우
5. 사업계획 완료 - 실장
6. 사학국본 회의 결합 - 실장
교육학생연대 회의 결합 - 태수
7. 교육부장관 면담 추진 및 교육대토론회 준비 - 세부계획 추후 제출

회전 하미꾸즈를 서랍해주시나다 미존꾸즈를 토하 6.15 꾸두서어의 만힘어는 이해 즐 7처마 거래의 자즈투인영랖은 미군의 대분정대처체과

애국의 60일 6.15 ~ 8.15.

7/7 ~ 8/30 애국의 50일

애국의 50일.

7/10 ~ 8/30.

✔ 건강생활을 진하하나!

→ 다양한 제작 수배하여 (내장시기에 맞게) 꼭 진하하나!

밥·수·토 운동. 실천. 향상

✔ 시식향상 여부장애하여는.

지방향상 · 기내향상

지방향상과 ~~제주~~ 주배향상.

✔ 자세들을 ~~[redacted]~~ 향상히

미주신들들 향상하나

신의기생들 지키고.

출하지자

✔ 애주 1회 실천.

일정하나!

규칙하나! 가가능한가?

2주1회 정하나!

수정하지에 .. 정하으로.

~ 7/19

✔ ~~제주~~ 향우들 만에기 (수차운동) ~ 7/31

인터넷 사업 강화. ~ 8/15.

✔ 차가 위기 운동. ~ 가가.

미일의 차, 유일의 차

차별 위기 운동 →

유일을 들리기 운동

(미동의 사람 여러지의 향)

하춘려 7/8일 시아계획 주의의원회 아

등선대 계획

의의 및 목표

- 6.15 공동선언 이후의 시대적 부대
- 대중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중대열을 이끌어내는 [redacted]
- 여성에게 희생만 강요
- 대중조직사업, 간부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 [redacted] 등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간사회 [redacted] 계획 조직

- 회원을 1인 이상 간사하라.

간사제

- 등선대 대중성
  - 사업적 대중성 — 소규모 대중성
  - — 소규모 사업.

K대로 모임 특강…

간사회 대중성

S — 강의, 학습?, 상식?

CC

N — 전대, 조대, 목대, 광주대, 숭실대,

TK — 경북대, 영대, 울산대.

BG — 동아대, 창원대.

- 여자를 잘 이끌도록 (육아기 중심)
- [redacted] 주로를 잘 들어내야 해
- 회장의 연주가 어떠에 있는가?
- 자세들을 일상화
- 매일 출석
  - 지각비만, 사유비만 할 것
- 학생의 기수
- [redacted] 정상으로
- 회비 출석
- 후속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가족부장관

- 26일 취임
- 7/6 취임

### 25~27 수련회 살해에 대하여

- 25~27. 학생일곱 강의사망.
  27~28 학생일곱 → 자세강의 ↓
  내용에 강의내용? → 양성평등강의 (서사원) ↓ -6.15와 서경지
  혹은 영상을 보기. (대상을 수정할 것인가?)
- 12~13
- 14 17~18 (지도) → 교육과 데려다줌 { 6.15와 여성. / 동일과 여성 } { 동의 내용생략 및 도출
  → 주변을 강의, 대중여강의
  → 여성운동, 여성혐오 시선에 대하여
  → 세계여성운동에 대하여
  → 한국여성운동사.

S, CC, N, TK, BG, J,

(서현) (지현) 민주, 윤주 — 범, 윤주, 지윤, 수, 혜경,

1~2인

윤재, 우진, 지수, 수정, 민주

두일 용인

범, 범일, 윤주, 지윤, 서연, 재재, 가진, 윤주, 혜경, 용인,

학생일곱들을 1차 2차 (취지설명들까지)

소모임 여성오름학교.

소모임의역할
- 일꾼 재생산영역
- 여학생들 대상화
기초건설.
소모임건설의중심.

(여성의 눈들의 의미.
여대생실감할게. 〈016-9210-0654〉
상에 대한 나.나기.

여대생실감대상의구성
→ 실무자모임
→ 여성오름학교 준비모임
→ 3,4,5학을 중심

소모임건설과기초건설연계.
" 취상
내용, 방법, 집중(전략)
개별상담등 주제강

→기초캠페인설계
〈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나의 주제로 모으자!.
→ 지역별로 ~~~~
여성학스터디형성 진행
→ 지은부위원.

소모임학교
→ 건설의 실천활동 계획
모집에서부터 ~.

여성오름학교 준비모임
→ 실무자모임
→ 여성오름학교 준비모임
→ 3,4,5학을 중심

| 동아리 | 실천활동 | 학교 밖 대중 조직 |
|---|---|---|

조직사업 초점에 대한 고민

여러동아리 계획을 어떻게?

특기강부

동아리활동과 연계 방법찾기.

집장 - ○
지장 - ○
조직
홍보

· 어제
11/12 자기점검의 날
11/19 자기점검의 날

⊙ 꾸릴사람이 없다.

10만원사업에 대한 동기사업
→ 여성브리치
자매결연
→ 대학과 학과별 실현, 지역과 학과별 실현

여성에게 주려고 하는 물질
→ 이건 내용주제?

대중적 홍보시설
게시대 ✓ 동아리실
"여성오름소식"

신문기사
✓ 기사형식

(오리엔테이션
사진, 영상자료실

소모임 건설에 대해

소모임이란?
소모임의 역할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
2005년 소모임 건설을 위해
소모임 건설의 결과

소모임의 위상

소모임 내용 제안

기행소모임에 대한 것

지역별로 일꾼들 여성역사기행
-

소모임 건설의 1년 방향 제안
소모임 학교는?

소모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쌓아나가자
->짧은 여행 긴 호흡같은 우리에게도 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
기행가이드북 만들기
->1년 후 한총련의 기행소모임들에 제안해도 좋을 듯

여성노동박람회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 준비
(카페 꾸미기)

여기
그러게 내가 묻는 거잖아
통신에도 올리고 할 거냐고?

집
그러니까, 조직말처럼 일단
여학단위가 함께 할 공동공약이 있는거고,
공개적으로 학생회에 제안할 것이 있어야겠지..

ㅇㅇ
그니깐 중앙단위 간부들에게 주는 거죠
모여서 회의야 안되겠지만
그럼 지금은 공동공약얘기하고 맨끝에 학생회에 제안할것 추리자구요

집
학생회에 제안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이니 통신이나 공개적으로 해도 될 듯한데..예를 들면,

ㅇㅇ
노동박람회 끝났나요?
상이 고민이네
무슨 상이죠
실사준비
포스터 사업처럼 하는 건가? 몇 종 포스터 이렇게?

집
그건 나중일이고

여기
여대생실업대책위 차원으로 할라면 여대생실업대책위 차원으로 준비 모임을 해야죠
방금 00가 말한 건 상이라기 보다 실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할 문제라고 보고요

집
네. 일단은 여성노동박람회의 의의에 대해서 제출하면 될 듯.

ㅇㅇ
기층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날 토론해보죠그럼
2. 3월 여성학 학교.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이랑 새내기, 학우 교양사업

집
각 학교별로 하자는 거지요?

ㅇㅇ
네 학교별로.
강사는 우리가 고민해서 추천해줘야 할 것 같구요.

여기
지역별로 다 다를텐데 내용 추천으로 하죠
일정이 겹치기도 많이 할테고

ㅇㅇ
그래도 부를 수 있으면 좋으니깐요. 안되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구.
동아대 보니깐 구성애는 민족얘끼까지 잘 풀어내었고 300명정도 왔는데
그 담 강연은 2명 왔더라구요
중앙에서는 일꾼들 챙길수 있는 수련회가 좋을 것 같애요. 강연보다.
올해 보니 강연회는 연대회의에서 고민하는 것 같던데. 참가하는 식으로 했으면 해요.
우리가 하지 말고.

ㅇㅇ
3. 여성역사기행
올해 계획서 낸 것이 11월 말에 결정되긴 하지만
1회에 대한 평가와 대략의 내용공유가 필요할듯
네
넘어갈까요
4. 생리휴강

집
생리휴강 동아대가 시행했으니
좋은 사례로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도하면 참 좋겠어..

ㅇㅇ
동아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논 것이 별로 없고, 굳이 정리할것도 없다고 그래서 좀 짜증이..
몇가지 오해 이정도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사례 발표를 했으니 우리 단위 사람들은 알거고,
낼 회의 조직화해서 더 많이 얘기들어보는것으로 할께요.
5. 반성학칙관련한 부분
실효성있는 개정
그리고 강의평가시 추가하는 거랑 학점화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학점화에 대한 부부은 서명하면서 의식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급작스럽다 싶을 것 같아요
대대적인 의식화가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실질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면서 해야할 것 같고
그리고 연계해서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해나가는 방도에 대해 생각해야겠고
여성단체 연대라든지
민주노동당 연계라든지

집
서명운동하면서 합시다. 선거기간에 풀어냅시다.

ㅇㅇ
저도 그래서 공약화 하기 보다는 요구사안으로 걸고 내년까지 계속 의식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개정만 공약으로 걸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 연대 관련해서 고민이 드는데.
우리가 제도권 내 성교육을 위한 무슨 무슨 위원회 같은걸 꾸릴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좋겠어요.
전교조도 짤라보고.
당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물어보던데,
초중고
연대할수있는 단위는 얼만큼인지
학내 여성단위들은 어떤 고민들인지요.
우리가 그럴 역량이 안되는 것이 문제죠
조직을 꾸리면 우리가 운영해야 하잖아요.
회의도 소집하고 투쟁 계획도 내고.
그게 힘드니깐 못했던 거죠.

여기
우리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른 단위에서 주요하게 붙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상집단위같은 걸 구성하죠 뭐
그러면 우리 총여 말고도 함께 하고자 하는 단위가 더 생길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단위들에 대한 지도까지 해야하니까 참 할 일이 많겠죠
조직국 사업을 내년에는 확실히 보장해줘야겠네요
그래야 우리 대오도 튼튼히 꾸릴 수 있을텐니

집
더 고민해보게요..

ㅇㅇ
커플연애캠프는 뺄까요?

여기
공동공약으로 내진 않아도 차차 총노선 쪽으로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ㅇㅇ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
어..커플연애캠프는 우리말고 여성단체들이 하잖어

ㅇㅇ
그냥 공동공약말고 대중사업으로 제안해도 괜찮을듯

집
네. 학교별로요~

ㅇㅇ
빵공장도 하자던데
그럼 6. 빵공장 건립사업
1년동안 돈 조직화 하는 건가요?
분공할까요>?
아! 소모임 건설은요?
빵공장은 집님이 해주세요
소모임 조직국장님
그리고 박람회도 총노선때 썼던거 조직국장님이 해주실랭쇼?
그럼 나머지 제가 .
밤11시까지요.

ㅇㅇ

큰 틀을 말할께요.

선거에 임하는 자세

현시기 여학생운동 진단

올해에 대한 평가

(근데 진단과 평가는 아직 안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강 여성계 20004 핫이슈 정도면 어떨까 하구요)

05 정세

05 여학생운동 방향(대중/조직)

정책

공동공약

그럼 차례 차례 해볼까요.

자세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보려구요.

정세적 요구, 운동발전의 요구 등등에서 우리가 잘해야한다. 올해가 중요하다.

참신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집

선거란 광범위한 학우대중을 의조직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므로

대표자부터 일꾼들의 헌신이 있어야...

대중속에 뿌리를 두고 배우겠다는 자세를 얻는...

빠쁜시간과 일정에서 동지애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선거때처럼 살아가자는 말이 있듯이, 가장 치열하게 살자는 뭐시기...그런거...

ㅇㅇ

현시기 여학생 운동 진단과 올해 평가가 있는데요?

위에 제가 썼잖아요. 아직 평가는 안된 상황이고. 어떠세요.

집

잘 안될 것 같으면, 아예 뺐으면 합니다.

진단은 그리 간단하게 원인과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평가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논의가 되알 것 같아서요

ㅇㅇ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빼구 2004 여성계 핫이슈 같은 걸 짧게 넣어보는 게 어때요?

집

핫이슈라...면 뉴스 베스트 10 이런건가?

ㅇㅇ

네. 제가 몇개 생각했는데요, 부부강간 법적 판결, 성매매방지법, 위안부 누드, 총선 40명국회의원, 박근혜 패러디, 여성의 낮은 출산율, 신데렐라 컴플렉스

정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화장실

이정도 생각이 나드라구요.

정리된 뉴스 같은게 있으면 좋을텐데.

여자화장실 면적

새로생기는 휴게소등의 건물엔 이젠 남자화장실만 크면 안되게 한걸로 들었는데..

유영철 사건과 달빛시위도 있었네.

실업률 높은거야 작년에도 그랬고, 특별난 사안인가요? 자살도. 여성계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집

김미화 남편의 폭행사건-가정폭력은?

ㅇㅇ

05정세요.

집

핫이슈를 우리들의 시각으로 써보는건 어때요.

여성계에 이런저런 일이 올해 있었고가 아니라

그 이런저런일들에 올해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가요.

물론 다 되지는 않을것같은데

위안부누드나 총선이나 이런것과 꾸준히

신문모음을 내면서 여성계동향을 알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ㅇㅇ

그럼 05년 정세얘기해보게요

공동선언이행, 해방60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펼쳐질것이고 여성의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집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이 계속될테고, 미 대선이후 부시당락이후

최근 파월이 우리나라에 다녀갔듯이

6자회담이 지속되거나, 북미회담(케리가 이렇게 한데)

이 되며 한반도 평화구축이 우리민족의 반미자주투쟁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합니다..

ㅇㅇ

거기서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회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민주적 과제를 실현하는 단계니깐

내년부턴

새로운 여성운동을 펼치겠다는 맘으로

자주의 과제 실현에로 나가겠다는 고민이

좀 있던데 . 사하여성회 부회장님이랑 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해방 60돌 여성의제 실현이라고만 ㅇ기하시더라구요

정리가 안되어서 얘기하기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법적 투쟁은 올해 마무리될 단계라서

여성회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대요. 자주의 과제 관련해서.

집

내년 해방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데

각계시민사회단체가 어쨌든 하나로 결집될 것 같은데...여기서 우리여성들도.

울초 파병여성행동, 지금 하고 있는 국보철 투쟁에 결집하고

함께했던 경험과

연대, 신뢰가 더욱 높은 수준에서 펼쳐져야할 것 같고

더욱 높은 수준이라면...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 공동의 인식, 공동행보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고민해서 제안을 해야하지 않을까싶네요.

아직 통일연대 여성위차원으로 수련회가 깨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볼 업두가 없긴하지만...요

그러는데 전여대협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국보철 투쟁에도 힘있게 밀고 나가거나 결합하지 못해서리...민망합니다요...

ㅇㅇ

네. 무엇을 제안하기가 참 그렇네요. 책임을 져야하니깐.

여기

진짜 2005년은 엄청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역량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현재 일꾼들의 인생관 자세 문제와

새 일꾼들을 발굴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달라진 학우들의 정서 고려도 그렇겠고

결국 새학생운동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어렵군요

ㅇㅇ

요청있는데,

집님이 연대단체언니들과 통화하면서요.

정세나 내년 방향 얘기들좀 들어보시면 안되나요?

나온게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집

각 단체의 계획말인가?

네. 대략의 계획이나 일정

있으면 미리 고민하기도 쉬울텐데.

결합도 잘 될 테구.

네. 최대한 오늘 저녁까지요.

집

네 그럽죠. 29일전에?

29일 전에 그건 어렵겠는디...그런건 통화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고민을 듣고 함께 얘기하고 이런 성질의 것인것 같은디...

정대협, 전여농, 반미, 통일연대 이정도 같은디....

ㅇㅇ

네.민주적 과제- 반가부장제, 법제도적 측면, 위안부문제 등등에 대해 얘기해봐요.

집님 더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나요?

집

아니....위안부 문제는 정대협에서 한달정도 전에 같이 토론회를 해보는게 어떠냐고

내년 해방 60돌 사업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더만...

ㅇㅇ

해방60돌 위안부 문제 토론회도 괜찮네요.

근데 친일청산법안에 위안부문제가 들어가 있긴 한거죠? 부각이 안되어서 그렇지.

집

네..자세히는 모르지만, 맥락이 조금 다른것 같더만...

위안부 문제는 어쨌든 따로 풀어온 과정이 좀 있어서...정부차원으로도

국민기금???(일본의)이였던가

그래서, 친일청산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고 있지 않는것 같더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남, 북 민족적과제이고

친일청산이며 과거사청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테니

ㅇㅇ

이북에서는 특별한 흐름 없는 것 같고.....국회에서 어디 ** 위에서 위안부 기념관 건립하기로 만장일치 봤다던데요.

집

네..북이랑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위안부문제는 민족문제로 더욱 부각시켜 과거사청산 문제에 핵심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ㅇㅇ

정대협에서 내년에 이북과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집

내년이 아니라 국제연대회의가 꾸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테고요...

ㅇㅇ

여성노동자, 여성농민에 대한 얘그를 좀 해요.

집

딱히 기존에 알고있던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겠는데,
저번주 신문에 보니
비정규직**법인가가 만들어졌던가해서
여성노동자가 더욱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져서
여성노동자회에서
내년 여성비정규직 투쟁을 제일 일선에서
해야겠다 이런 걸 본적이 있다우.

집
법제도적인 측면은

ㅇㅇ
호주제는 폐지 될까??

집
확실히!!!

ㅇㅇ
음. 왜?

집
관습헌법의 남용은 지금 헌재의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보네.
호주제 폐지는 이미 대세야...

ㅇㅇ
성매매도 소원할거래.

집
대선때 이미 한나라당까지
합의했고, 실제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잖아.
미친건 맞는데
수도문제외에
수도이전문제외에 이례적인 판결은 없을거라는 예상이라는거제.

ㅇㅇ
수도 옮기는 것도 찬성했었다고. 나중에 확 틀었잖아.
농민사안에서는 어때요?
여성농민이 주축이 되어서 통일선봉대도 갔다오고,
쌀투쟁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에 투쟁이 없어서 그런건가?

집
정세적 요구가 있어서 민중생존권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긴하는데 민중대회에서 하반기 방점을 찍을 것 같군요.
민노당, 민노당 국회의원 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하고 있기도 하구요

ㅇㅇ
하반기 민중대회가 몇일이어요?

집
잘 기억이 안나는구려...11월 중순이디

ㅇㅇ
11, 12 그랬었나
내년의 농민투쟁방향은 어떤가요?
계속 쌀투쟁인가보네요?
네 그럼 넘어갑시다.

ㅇㅇ
대중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
조직강화, 사상사업
이렇게 얘기할건데.
조직언니 있어야 하는데.
첨 것 부터 얘기해봐요.
의조직화 사업의 혁신과, 기층 발동
정세에 맞는 투쟁진행
전여대협 대오로의 집중성 있는 모습

집
앞에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기본틀로 고민하고 있는건지...
그 의도를 알면 얘기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외계인이 고민하고 있는
구도와 계획이 있는것 같은데, 하나하나씩을

ㅇㅇ
의조직화 사업이 혁신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층발동을 제대로 시켜내는 성과있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소모적인 사업도 많이 진행하면서 힘만 빼는 것 같아서요.
집중성 있는 전여대협 투쟁에 흐름을 만드는 식으로 하면 좋겠고.
그때 그때 정세에 맞게 학내 사업도 잘 진행하자.

집
소모적인...구체적으로 뭐가 그렇다고 생각되는지..

ㅇㅇ
아, 필요한 것인데 성과있게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노가다식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요.
학내에서요.
전여대협은 꼭 필요한 것만 제안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 상승 곡선을 그리는 대중 의조직화가 필요한데. 그게 어렵죠.
여학생운동 방향 토론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맞는거 맞죠?
방향토론에서 대중사업과 투쟁영역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지점에서 경희대는 혹시 토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시기쯤이면 벌써 끝났을수도 있겠네.
경의대 애들 한해 평가하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 방향같은거요./

집
어...지금 하고 있는 중인것 같아.
올해평가랑 내년에 관해서는 틀을 만들고 있는것 같던디.
지금은 단위와 간담회하면서 과까지 공동공약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

집
그것까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반성폭력 학칙 개정, 생리휴강을 단대까지 비치해서 받을 수 있도록하는..
지금 내년 투방에 대해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은디, 공동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어때?
평가가 있어야 그에 근거해서 투방도 얘기하고, 혁신과제도
찾을 수 있겠는디, 그것이 안된상황에서는 이렇다저렇다 하는 식의 뜬구름 잡는 격이잖어요.

ㅇㅇ
그래서 다 빼고 공동공약만 하자고요?
그럼 문서에서도 다 뺍니다.
정책얘기해봐요
영역별로

집
외계인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과 의도를 좀 잘 설명해주면
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디...
별로 없긴해도 먼저 고민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한바 없어서
그 의도를 아는바 없으니 잘 설명해주면

ㅇㅇ
성매매, 성폭력, 법, 가부장제
60돌 기념사업 및 반미통일사업
학우소통, 사이버대책
조직강화 대책
이 정도로 영역을 나누어서 정세에 맞게 내용을 내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
지금 그 정책이라하면, 내년 전여대협의 총노선의 토대가 되는 거겠죠?

ㅇㅇ
그렇겠죠.
밑의 2개 빼고는 정세가 어떻게 될 지 알아야 하는 거라서.
단체 사이트 들에도 내년 방향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참고 좀 할랬더니
집이 말한 공약중심으로 하자는 얘기요.
네 그럼 선거정책도 빼나요?

집
선거정책하고 공약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약을 얘기하면 정책?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ㅇㅇ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커플 연애캠프요.
3월 여성학 학교는 한총련 내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제안했으면 합니다.
커플*** 는 올바른 피임과 연애, 양성평등을 가르치는 장으로 만들었음 합니다.

집
네..하나씩 얘기해보죠. 의도와 방향에 대해서요

ㅇㅇ
전여대협 기행 소모임 건설에 대한 고민은 어떠십니까?
한총련 차원으로도 기행소모임을 권장하고 있던데,

여기
꼭 기행 소모임 이렇게 제안할 필요 있나요?
소모임 건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올해 이미 건설한 데도 있는데 내용을 바꾸기도 그렇잖아

ㅇㅇ
소모임건설에 대한 고민
예전에도 시도했던 거라.
우리가 내년에 한다면
중앙에서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소모임 건설을 기층 건설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희대의 경우처럼 단대나 과 차원의 소모임을 꾸리는 것을 권장하고
그걸 꾸릴 수 있는 주체들을 최대한 마련하고
중앙에만 꾸리는 것으로 하다보면
총여의 역량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배가 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구요

ㅇㅇ
네
근데 총여 꾸리기도 힘든데 단위에 내려보낼 역량이..
당장 동아대 상황만 봐도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여기
단위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죠

집

정책이 애기했던 것처럼, 소모임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해서, 기층건설과 소모임이 여학단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재생산

여기
그러니 순전히 우리 일꾼들로만 다 꾸릴 수는 없겠죠
최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집중할 데를 정하고 이런식으로

집
과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해얄 것 같네.
경희대와 같은 곳은 대학운동 역량이 마련되고, 일년간 핵심방향으로 역량이 되는 총여일꾼들이 직접 지도하고, 총화하면서 만들어왔던 거라
다른대학의 현실에서는 과, 단대단위에 만들자하는 것은
자체 역량에서는 엄두를 못낼 것 같으니, 경희대와같은 사례를 잘 알려내고 중앙에서는 소모임을

여기
참고하도록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개 과나 한 개 단대 정도로

집
조직확대강화사업으로 매시기별로 내용을 제출하고, 총화하고, 점검하면서

여기
요즘은 단위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 데가 있으니 발굴해보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집
잘 하고 있는 단위의 모범과 사례에 대해 일반화시켜나가면 좋겠네요.
뭐든 쉽진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내용이 제출되고, 총화되고, 점검지도가 안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내용 제출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풀어가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문제이고

집
뭔 내용?

여기
일꾼들이 과감한 시도를 못해보기 때문이 크지
소모임 건설 내용 방도 말이죠
그런 건 이미 다 제출되어 있다고
올해가 아니라 이전에요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면 되죠
할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지

집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중집의 고민에서는 할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려는 노력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할려고 하면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간부들에게 물을 수도 있고

집
기층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노력을 안한다기보담은

여기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단 얘기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집
어디서부터 뭘 해야하는지 모르는 일꾼들이 우리대오에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여기
그렇게 따지면 총여학생회 활동 전반에 그런 어려움이 나설걸요
상과 구도가 없으니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건 그럴텐데
그럼 학생회 학교를 하던가요 애초에 처음에

집
그러니까 매해 사업이 반복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층을 보면 일꾼들이 해마다 겹치는 것은 아주 소수잖아요.
이런 현황이니까 중앙에서는 1년의 계획에서 매시기 내용을 제출하고,
총화하고, 점검지도해서 잘 되는 것에 일반화해서

여기
2002년도에 그렇게 해보았거든요
내용 제출하고
그런데 총화 점검 지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중앙의 몫이에요
그럼 중앙의 결심을 높이고
책임있게 끝까지 하는 것 그만큼의 사명감과 결심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할 거에요
그럼 집장님 말처럼 해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내년에 그 때 그 때 대책을 잘 세우죠

근데 그걸 올해 선거정책에서 어떻게 내용적으로다가 제출해주죠?
그건 좀 어려움이 있네

집
그래서 소모임의 역할-일꾼 재생산방도, 여학운동대중화의 방도-로 언급하면서 기층건설, 소모임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제출하면 어떨른지요

ㅇㅇ
언니가 제출하는건가요?

여기
제가 해야되는 거죠?
그럼 해야게쎄

집
!!!!!!!!아니, 공약의 의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애기안하고, 뭘 끝내?
제시만 하면 되는 내용도 아닌디, 그걸 각자 또 고민해서 또 정리하고 그러자는 거는 반대요!
의견일치가 되야 뭘 끝내든가 하제...

ㅇㅇ
의도와 방향은 뭐야 맨날..
계속 애기했던 건데, 고민드는거 있어요?

집
각 공약마다 왜 그런 공약을 제시하는지, 어떤방향으로 할 건지는 합의가 되야잖소..
서로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긍께 지금 애기하자고요. 하나씩

ㅇㅇ
여성노동박람회
3 8 준비하면서 전단위가 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대한 공유를 하고, 여대생실업의 문제를 얘기해보자.
상은 올해 얘기했듯,
실사를 뜰수있게 제출한다든지, 조형물을 만들던지

집
여대생실업대책위의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집
이 공동공약은 전국의 여학단위에 제안하는 거고,

ㅇㅇ
집이 여대생실업대책위가 한다고하길래
제안하는거 아니냐고
나는 모든 단위에 제안했으면 하는데요

집
전여대협의 이름으로 각 대학 학생회(총학...등)에
여대생의 문제, 여성의 문제들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는...

ㅇㅇ
이 공동공약은 어디에 제안하는 건가요?
전체단위 아닌가요?

여기
처음부터 여학단위 아니었수?
공동공약을 한총련에 제안할 것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것 아니었남?

집
모든 단위에 제안하는 것은 전여대협이 한총련에 제안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교육의 문제나 하는 것은 교육대책위와 같은 더 큰 범위에도 제안해보는거죠.

여기
그리고 통신에도 올릴려고 하는 거였수?

ㅇㅇ
이것 중에서 걸러서?
지금 다들 공약 정하는 시기야. 나중엔 못해.
그니깐 한총련과 우리 여학단위에 제안.

집
그리고 각 대학총여에서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전여대협 공동공약을 자주적 학생회 선본에 제안하는거야겠죠.

여기
여학단위에 제안할 것을 다 한총련에도 제안할 고민이었수?

ㅇㅇ
다들 공약이 고픈 시기에 던져주고 내년에 강제해야죠

여기
그렇게 할라믄 자주적 학생회에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회에 모두 제안하는 게 맞지
한총련만 갈라갖고 할 필요가 있남?

ㅇㅇ
네 한대련도 좋네요
중앙에
ㅇㅇ
공개적으로 올려도 되는가요?
안될듯

<<지도사업 내용>>
목표 : 꼭 전 단위를 다 총화하고 전 단위가 방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시다.

1. 방중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학습 운동 계획
-실천활동 계획 수립
-조직사업 계획 수립
-55일 행동 계획 수립
2. 여름농활 평가 후속사업
-평가틀에 기반해 단위 평가 및 모범총화 후속활동에 대한 지도를 합시다.
3. 여름강좌 및 수련회 해설 및 조직화
4. 통선대 조직화하기
-단위별 목표 1인 이상
5. 지역여대협 모임 조직화
6. 언니에게 희망을 조직화
-전반적으로 수련회 조직화와 맞물려 진행하며, 서울 경인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대중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도사업하기
<<분공>>
1. 주체총화 준비-모두
주체총화틀은 아래에 있습니다.
2. 55일 행동 계획 세우기-모두
3. 집행대책 고민하기-모두
작성-집장
4. 중집 학습계획 짜기-집
5. 여학생운동 토론회 계획 수립-집
6. 통선대 계획 문서화-집
7. 지역여대협 모임 내용 고민하기-집
8. 기획연재-정
9. 조선대 및 노래 관련 제안에 대한 글쓰기-정
<<주체총화틀>>
0. 인생총화
-가족 관계, 학교생활, 연애 등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에 대한 총화
-운동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대중의 힘을 느끼고 대중의 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총화해 봅시다. 서로가 잘 알 수 있도록
1.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2. 상반기 자신의 활동을 돌아봅시다.
-자신의 조직관, 대중관은 어떻습니까?
-동지를 대하는 자세와 관점 및 동지애를 어떻게 구현합니까?
-학습을 잘 진행했습니까?
-지도사업 평가
-국사업 평가
3.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4. 방중 및 하반기 결의 및 계획

★55일 계획

학습
매일 1시간 학습
책 읽기 운동
-참봄 읽기
-여성학 책 :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민족과 페미니즘,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여성/몸/성, 통일과 여성 관련한 책
-혁명소설 읽기(삼천리 강산)

조직
-지도사업을 잘 한다

투쟁
-실천투쟁 결합
-정세 파악을 잘 하도록 한다.

★통일선봉대 계획

1. 의의
1) 6.15 이행을 위해 선봉적인 활동을 한다.
2)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의 정신을 확산해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뚫고 나간다.
3) 여학생회 핵심 역량을 키우고 단련하는 장이다.
4) 대중선전선동, 조직생활 등의 모범을 창출해나간다.

2. 조직화 목표
서울 - 숭실대2
남 - 전남대2, 광주대2, 목포대2 : 6
대경 - 영남대2, 경북대2 : 4
부경 - 동아대2, 창원대1, 지역여대협1 : 4
중앙 - 대장, 실무 : 2
총 18인

★중집 학습 계획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1. 여성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페미니즘에 대한 것
-행복한 페미니즘
-페미니즘

2) 민족과 여성, 통일과 여성 관련한 내용
-○○○ 민족관, 민족과 페미니즘, 통일한국의 미래, 통일과 여성(이대)
-대하여, 주변론
3) 한국 외의 여성운동에 대해
-제3세계 여성운동사 및 여성운동에 대해

-북의 여성운동은

2. 여학생운동 대중화

4) 총여학생회, 대중조직으로서 그 동안의 평가
-자주적 학생회에 대해
-전여대협 역사 및 각 대학 총여학생회 대중운동, 조직현황 파악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
-총여학생회 해소, 여성위원회로의 전환의 순간

5) 학생운동조직, 한총련과의 관계 및 여러 문제
-새학생운동론
-조직체계 문제

6) 여학우들의 자주적 진출을 담보, 확대를 위해

7) 여학생운동가의 계급성 체득은?

3. 여성들의 자주적 진출을 위한 기본 담보로

8) 여성의 정치세력화 문제

9) 학생운동 사회 내 가부장성 극복을 어떻게

★지역여대협 모임 때

19일 밤 : 상반기 심화토론 진행(술자리하면서??)
-여학생운동에 대해 고민되는 다양한 지점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상반기 전여대협 운동에서 성과 한계 극복지점 등

20일
비디오 학습 : 혁명비디오
노작학습 진행
학습 및 토론 : 그리 길지 않은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기

자여론 2002년 중집 토론꺼리

여학생들의 계급계층적 처지와 특성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자여운의 근본사상
사회성격을 어떻게 봐야하나?
한국 사회 성격에서 가부장제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여성억압의 근본모순은?
여운의 기본과제는?
여학생운동이 독자성을 가지기 위한 중심내용과 과제는? 체계전망은?
여학생운동의 주체는?
여학생운동의 주력군과 기본역량은? 즉 동력은?
여학생운동이 타격해야할 대상은?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과의 관계
여성운동 내에서의 여학생운동의 역할
여성운동의 조직전망
여성해방의 목표
여성해방의 경로

학생회내에서의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가는 체계
여성의 몸에 대한 정의와 투쟁방법과 내용은?
이성애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해야하며 여성억압의 근본기제는 아닌가?
여성의 욕망은 어떠하며 어떻게 방향화되어야 하나?
학생회 체계 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고 독자성이 낮은 이유
전여대협 내에 조직체계의 위계적 성격이 있는가? 있다면?
여성주의 운동은 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여학생운동 토론회 계획

★집행대책 문서

## 4. 분반활동, 이것만은 꼭 하자!

### (1) 분반활동이 연대의 깊이를 결정한다.

분반활동은 '농활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농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활동인 작업 이외에 분반활동은 농활의 대부분의 활동을 차지합니다. '청장년반', '여농반', '학생반', '아동반'을 기본으로 지역이나 대학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분반활동이 존재합니다. 형태가 어떠하든 분반활동은 농민과 학생의 실질적인 연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분반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농활에서의 연대의 깊이를 결정하고, 농활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분반에서 농촌의 현실을 배우게 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강화와 학생회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농민반 활동은 여성농민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 여성농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또한, 아동반과 학생반을 통해 농촌의 학생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분반활동의 결과물로 마을잔치 등에서 전시, 공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함께 나누고 고민한 것들을 공유하고 성과를 모아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과 결과로 연대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으며 분반활동의 최종적 결과로 농민회, 여성농민회, 학생회, 여학생회 강화로 조직적 성과를 모아내게 됩니다.

### (2) 분반활동! 진부한 내용은 빼고!

#### 1) 청장년반, 이것만 하자!

청장년반이 있는 마을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 40대인 곳도 있는 상황에서 청장년반의 어려움이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농민반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반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반의 주 활동목적은 농민회원 가입과 농민회 강화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내용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어려운 분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분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 농활에서는 이것만은 꼭 해봤으면 합니다.

**① 사랑방 좌담회, 말같이 쉽지는 않지만...**

- 될 수 있으면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잡습니다.
- 여성농민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진행합니다.
- 좌담회를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농민회원이나 농민회 간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그 결과로 29일 밤이나 30일 새벽에 함께 상경할 수 있게 19일 전에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 가능하면 투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후 DDA협상 승리와 민중총궐기 성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술도 한 잔!)

**② 컴퓨터 교실, 해 볼만 합니다.**

- 마을회관이나 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
- 청장년반의 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실을 열고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드립니다.(이메일 사용법, 인터넷 사용법 등)
- 그리고, 농활대와 마을 간의 카페(커뮤니티, 클럽 등)를 만들고 가입하실 수 있게 합니다.(일상사업과 후속사업의 기본 매개가 됩니다.)
- 될 수 있으면 전농 사이트와 주요 사이트를 잘 가르쳐 드리고 들어가실 수 있게 합니다.
- 정기적인 컴퓨터 교실을 진행하면 정말 좋습니다.(학교 컴퓨터 동아리를 농활로 조직화 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③ '여름농활'배 윷놀이 대회**

- 여성농민반과 함께 윷놀이 대회를 하면 좋습니다.(매일 밤 술보다는 건전한 놀이지요...)
- 청장년반 대 여성농민반으로 윷놀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분반 구성원끼리 단합이 잘 되서 좋습니다.
- 벌칙은 여성농민반이 졌을 경우는 '하루 종일 바가지 안 긁기', 청장년반이 졌을 경우는 '내일 설거지와 참은 남편이 하기' 등으로 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아마, 다음 날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④ "떴다!" 우리 마을 '가족 오락관'**

- 가족오락관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스피드 퀴즈'와 '이구동성'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 역시 여성농민반과 함께 진행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점수제로 해서 합산해서 오늘의 승리팀이 윷놀이와 같이 패배팀에게 벌칙을 줍니다.
- '스피드 퀴즈'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총련', 'WTO' 등의 단어를 넣어서 내용도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못 마치거나 설명을 이상하게 하셔도 이후에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이구동성'은 네 자짜리 단어를 동시에 네 명이 외치고 상대편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여름농활', '농민해방', '여성농민' 등의 단어를 포함합니다.

#### 2) 여성농민반

여성농민회와 여학생회 조직강화를 위한 농활 만들기

"잘 되고 있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농활 때 우리 이것만은 꼭 해봅시다.

**① 준비과정에**

**ㄱ. 주체 마련하기**

중앙 주체에서부터 단대 또는 마을별 주체까지 여농주체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체별 준비모임을 진행합시다. 서로 준비도 함께 하고 교양도 하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계획하기도 하면서요.

학교별 주체들이 꾸려지면 전여대협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모임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기 전여대협 의장 강정은하 018-531-6749, 이메일 9jydh@jinbo.net, jydh@jinbo.net)

**ㄴ. 교양 잘 하기**

교양을 잘 해야합니다. 기본인 거 아시죠? 녹두꽃을 뚫어지게 보시면 기본적인 교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이 어려우시면 전여농과 전여대협으로 연락 주십시오.

- 내용 : 여성농민회,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양 꼭 하기, 농활 성폭력
- 대상 : 여농 주체 뿐 아니라 농활 대원 모두, 특히 학교 농활 주체들.
- 참고 : 동영상 교양자료를 19일 경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ㄷ. 여성농민회와 미리 만나보기**

군여농, 마을여성농민회원들을 미리 만나서 함께 준비해봅시다. 여름농활을 어떻게 알차게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계획 세웁시다. 중앙주체는 군여농을 마을주체는 마을분들을 만나면 되겠지요. 봄농활도 수행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좋을 지는 대략 감을 잡으셨지요!

**② 농활 함시롱(^_^)**

**ㄱ. 여성농민회와 함께 하는 마을 교육을 꼭 해봅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군여농과 도여농과의 연계 하에 가능하도록 준비해봅시다.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면 분반활동 하루 프로그램에 여성농민회 회원과 함께 하며 여성농민회를 알리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지요!

**ㄴ. 1학생-1여성농민 짝꿍하기 운동**

이렇게 하면 여성농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겠지요. 마을 전체 여성농민들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농반 활동에 열심히신 분들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마을의 경우 농활 이후의 활동들을 꼭 알려주세요.

**ㄷ. 마을 잔치나 통일한마당에서 여성농민들 한 목소리 내기**

여농반 활동의 성과를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농반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도 좋을 것 같구요.

**③ 후속활동**

**ㄱ. 여농반 활동 평가 꼭 진행하기**

농활 후 주체 모임을 하면서 평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하자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쉽게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거든요. 중앙 여농 주체가 꼭 진행하도록 준비해봅시다.

**ㄴ. 활동보고 및 평가서 작성해서 시군, 도여농과 지역여대협, 전여대협에 알려주기**

활동보고 및 평가틀은 나중에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꼭 그에 맞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힘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에 의해 짐을 한 성에게만 몰아주는 것 역시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로 도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겠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짐을 나르자 으쌰~ 으쌰~

### 2) 마을에 도착! 이제부터 일을 나눠서 해 봅시다.

짐도 풀고 이제는 학교에서 준비해 온 선전물이며 마을회관 청소도 해야겠고 할 일이 태산이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을회관 청소는 여자들에게... 현수막 달고 모진 일은 남자들에게 주어지게 해선 안 될 일! 효율적인 일 처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부풀리고 과장되어 사회에서 펼쳐지는지 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남자들의 역할은 계속 남자들만의 역할로 고정되어지고 여자들의 역할은 또한 여자들의 역할로만 고전된다. 그래서 제안! 현수막 달고 마을회관 청소는 힘을 모아서 하면 될 노릇. 이번 기회에 여자들에게도 현수막 달 기회와 기술을 가르치고 마을회관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을 남성들에게도.

### 3) 마을 분들이 마을회관(농활대 숙소)에 한 분 두 분 찾아오시고... 음식도 해서 날라야 하고 마을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야 한다구!! 아이구... 바빠~바빠~

마을회관에 있다보면 저녁에도 낮에도 가끔씩 발길을 하시는 마을 분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자니 심심해서 작은 먹거리라도 필요한데... "누구야? 음식 좀 해와라!"

이럴 때 여학우들만 그 일을 해서 될 일인가. 아무리 여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배우면 못 할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더구나 요리사란 직업을 가진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가. 이번 기회를 삼아 남자친구들도 음식을 마련하고 여자 친구들도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자! 여자들만 음식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잖은가?? 간혹 가다 마을 분들이 "아이구! 망칙해라.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하시면 그런다고 주눅 들지 말고 이렇게 한 번 말해 보자! "남자가 부엌 들어가는 게 어때서요. 저도 음식 잘해요!" 음식 만들고 부엌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여자들만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이다.

### 4) 고민... 궁금...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

작업을 나가야 한다. 그런데 소똥치우기, 돼지우리 들어가기 등의 힘든 일이 가끔씩 주어진다. 그러면 마을분들은 "남자아이들만 필요한데..." 김매기, 밭일 등이 있다. "여기엔 여자아이들만 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요청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여성들과 그에 비해 덩치도 있고 힘도 더 센 남성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아이들이 도와드려야 하고 밭에 쭈그려 앉아 일을 하기엔 여성들이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애초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배울 기회도 기술도 부족해진다면? 그러다 보면 아예 그 일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농활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 8. 7.4 농민 · 학생 통일 한마당

7.4 농민 · 학생 통일 한마당은 반미 · 반전, 민족공조 내용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농활기간 최종 총화지점이 됩니다. 큰 규모의 한마당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단위 상황에 맞게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하거나 '면민 잔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1. 통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2. 통일의 의미.

사전적 의미

통 : 일 (統一) [명사]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1. 나누어진 것들을 몰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듦. ¶조국 통일 ./신라의 삼국(三國) 통일 . 2. 서로 다른 것들을 똑같이 되게 함. ¶행동 통일 ./의견 통일 . 3. 다양한 여러 요소를 서로 관련지어 떨어질 수 없게 함.

통일은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일 → 본질적 의미.

"목하회치, 대중의 부회"

2-1. 분단의 원인?

-남과 북이 갈라져 사는 이유?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남측에 주요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는?

제국주의 나라의 특색 →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인민이주인이 못한 나라.

분단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 일상적 독재와 집단적 이데올로기 체제에 놓여있고.

미국의 목하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배주의 나라 이념?

우리 여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 억압을 유발했다 등.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2개로 갈라진 6.15 공동선언… 이데올로기로 목하정치 강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보호해주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 자주와 민족대단결 사상을 확고히 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선언으로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민족자주, 대단결, 평화 선언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산여진 말이냐, 그 사람은 살았지!

이라크 파병 철회의 의미?

-여성들의 강간 캠프 반대에도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 실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특히 미군 철수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 북한인권자유법안 미하원통과.

→ 여단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 공동체 몰락

아프리카침공

열린우리당 정동주 니은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 냉전적 이데올로기 강화
- 기부장치 " 강화
- 여성이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함.
- 높은등치 (양극화 유지)

식민지나라였습니다.

6.25후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외국군대에서 강요.

미국의 영향력 개편강화 주의를 서라.

등치자들, 지배층들 … 기득권세력 친일파 "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

미국의 전세계 패권전략

냉전국가를 후기에 가서 차별적 차이를 만들다.

지배주의가 세계적 바이러 제국주의

2. 전 단위 간부 일꾼들에 대한 학습 지도가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평가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각 대학 여성문화제나 대동제등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4. 총여학생회 활동을 백방으로 높여 학우들이 기억하고 소리내고 찾아오는 총여학생회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5. 반성폭력 운동, 여성노동 문제와 주미철, 국보철 등 많은 대중사업들을 진행하며 총여학생회가 소진하는 방향이 아닌 새롭게 쌓여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을 마련할 것인가?

<1간부 1대학 핵심지도를 통한 모범 창출>
- 그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대중적 사상운동, 대중의식화 방향을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6. 여학생회 건설 사업
**-총여학생회 건설**
-단과대 여학생회 건설 사업(단대 내 주체 마련을 위한 활동)

전여대협 현재의 현황
-현재 소속 대학 총여학생회 또는 중앙 차원의 인자들에 대한 총화와 지도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소속 장악하고 있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적극화해야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소속 단위 총여 외에는 연계가 부족하며 공통된 과제로 함께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몇 개의 그룹으로 현재 여학생운동이 나뉘어진 듯하다. 여성주의자 그룹(여성주의 한판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단위), 연대회의 등 좌파 단위, 여러 담론이나 주제들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모임과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위(전북대, 서울 지역의 여러 학회 소모임등), 그리고 별다른 특별한 활동이 없는 단위들(경남대, 창원대 등), 그리고 전여대협 소속 단위들(이 안에서도 활동을 잘 안 하는 단위가 많고 자체로 무언가 내용을 생산하고 그러지 않는 단위가 많다.)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진 않다.
-전국 각지 각 대학의 소모임이나 모임 등에 대한 총화와 지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찾아보아야 한다.

해마다 진행하는 활동들을 보면
-전여대협 총회 출범식 수련회
-3.8 투쟁기획단 활동
-메이데이 여/聲
-여파문화제(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새움터 활동
-전여대협 여성역사기행(앞으로 할 거니까)
-여성주의 한판 여름 캠프 등
-월경 페스티벌
-대학별 여성문화제나 섹슈얼리티 문화제 등
-[illegible]

# 7. 8월 계획 세우기 과정

✓ 사업계획 초안 작성하기

<복지관 A4 2장>

<내용 - 여학생문화에 대하여, 사업목적, 학내 여학생문화 조직현황, 대상자선정과정,
학교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사업추진방법)>

✓ 구성원 동의를 얻기

- 상반기 조사결과 돌아보고

• 일꾼들에게 상상과 비전에 대한 낙관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나중의 책임자들을 기르기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본학습의 필요 : 학교에서 진행할 것?

→ 지역여대협 · 대학 실정을 모인 자리에서. <참여자로 실천 조정해줘야 함>

이니크 대표자회의 → 지역별로 모여서 수련회에서 워크숍에서

✓ 실천 - 동일실천, 국제세미 (기본부터) 과제점검.

동선대? 지금 시기 동선대를 꾸린다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실무역량은 누가 더 가지고 있을 것인가?

지역별 실천 조직화로!

→ 동선대와 함께 움직인다! 따로 움직인다.
특별동선대처럼 따로 꾸려볼 것.
: 여성주체를 늘려내자.

✓ 수첩운동

→ 수첩기획안

수첩활용지

대의일지
<기사, 실천, 학습
조직사례소개>
주장하
책 읽기 운동장려
영화보기 장려

실천조직화

학습주제? 조직사례소개

남부동장선거지기
기획실시그부장

→ 학교별로.

일반사업 구성하자기? :

✓ 8월계획 어떻게 : 수련사업?

- 학내대회를 많이 할 일은 없을텐데... 무엇을 할 것인가?
- 방학대회

학습에 집중하자 동선대역할은?

↳ 일꾼수련회 때 배울 계획.

✓ 소학생연사업 - 사업계획 진행하며 필요한 점검하기.

- 참여하는 다시 저희 기획안 꼭 살펴.

실천: 7/11, 17, 24, 7/27 (3회) 30일

집중실천과 청화 〈1박〉 집단교육

7/17, 24, 7/27 → 지역별 투쟁 결합.

하루 → 지역별 여학생끼리 수련회 등 진행하며 하루 실천 꼭 진행하기.

하루 할 때 지역별로 꼭 진행하기!

경기, 아주, 협성

경원, 동인, 이대

대전: 경상도 영남 등에서.

〈지역여대협 집단 학습 실천〉 꼭 진행하기.

전체집중 또는 서울경인 집중 7/30

- 3박 4일 지리적 거점과 집단 학습.
- 모든 총여학생회장단 회의 후 실천활동 진행.

집중실천에 많은 유인책 제시.

7/11, 7/30, 8/14.

〈대행정체〉

?(X), 서울권에서 집중실천 할까?

8/14 행사준비 중비롯해 서명마감함께 시청으로 행진. 〈기일투쟁〉

8월15일 이후 지역별 취업관련 대책 및 집회

8월초에 집회제안과 학습등을 진행.

지역별 주체 대학 - 경희
- 협성
- 경원, 동일, 이대
- 고대
- 연대
- 영대
- 동아, 숙대 인제

〈총여단위, 여대 등에 제안〉

총여단위에서 먼저 수련 이렇게 제안.
그 후 전체 집회 및 행진 진행.

→ 여성노동착취 진행

〈이슈 만들고 …
여성노동착취 영상, 전시를 …
거들 수 있을 듯과 이렇게?
〈학교별로 진행한 후 목소리 모아내고 비판할 것인가?〉

〈교양자료 2개 제작〉
- 일공용
- 여성기업차별자

〈여성여대기업 간담회나 교육〉

~7/10 : 1차 청화

~~7/17: 협성우리~~

~7/17 또는 24 이후.

교양자료 제작 7/10까지

시간교육 2~3차 진행하도록. 안되면 지원하고 1회라도 진행하기.

학생이 누구일까?

서울 - 경희, 한양, <경기, 가톨릭, 항공,

경인 - 경원, 인하, 용인 → 실학정신

아주, 경기, 협성 → <오인에 대한 정보> - 4학년이다. → 지역강북 배출

교통해 - 고대, 서울 → 캠

관광주점업 - 전, 조, 목, 광, 숙, 목희

대경 - 영대, 동국, 상주, 안동, 대구대, 경북대

부경 - 동아, 인제, 창원, 경남, 경상

→ 지역강북 <학생구하기>

→ 지역강부 <학생구하기>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건가?

책이야기 용명 + 오. 10권

다른책? 무엇이 좋을까? 우리의 밥… 내 곁에… 빛… 영생… 역사이래하…

창대… 바람바람…

★ 소설하고

청하서… <사랑과 세계> → 개별학습정리 [별의세계 / 김광규 시세일지]

역사서…

학습을 참작해보고 나서 학습 진행, 정리까지 개별적 대처 서두기.

<H, j 전작대회>

- 성목적?

여성활동전반? → 학생에 목적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 관점을 전환할 것!

→ 주제를 다양화할 것.

→ 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대상 중학생>

미래를 향하여

<달려라정호>

학교에는 일찍 왔니? 늦게 왔니?

신발이 닳도록 공부해 달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세상 차지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 거야

청년의 힘찬 가슴에 달려달려 가보자

끝없는 우주까지 달려가보자

달려! 우리의 청춘 빛나는 세상을 향하여지고

너는 내가 닦은 밝은 길을 따라오지마

달려! 세상에 던질 때까지 늦지 않게 뛰는 거야

달려라 청춘아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향해

우리의 미래.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

<대대를 향하여> 광명하나 만들자! → 상생대장

여학우들에게 설문조사 진행 → 여학우들의 요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 더 느끼는 차별
" " 정서
" 함께 하고픈 내용.

7/18 지도사업 계획, 대학별 목표, 주체의 목표.

일상적으로
- 기상시간 6~7시 사이
- 신문, 출신중학
- 학습 7~9시

자기적으로
지도사업 학신
조직분공을 대학별 지세
동지애

실천투쟁
- 대학을 불러일으킨다.
  대형집회, 퍼포먼스.
  학내기 투쟁국비 (비상동국, 여성동권)

대구 1회 방문대학
: 대경, 영대
: 경기, 협성대, 위대, 경원

X
: 아주, 계명 (2주 1회정도~)
: 인하 (연락해보고)

방점
- 동선대출동과 기외 투쟁.
  지역여대협 모임 - 8월 초경으로 잡기.
- 여성동일학년당, 전형학년대당으로 조직화.
- 유인을 1달부 효동.

학우출동에 대한 전경 출하부족
- 일이터를 방향으로 미리 분공(?)하고 전개하는 식으로 잘 못함
- 미리미리 꼼꼼하게
-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일이터 방향으로.